



###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 우주의 신비와 불법 1

만유가 태어나 지나다가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면서 우주를 꾸며간다. 여기서 만유의 생주 이멸 그 자체가 조화로우면서 신비롭다.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 조화로움이 있고 혼돈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안정돼 보이는 것이 우주의 모습이며 신비이다. 여기서 '우주의 신비'란 우리가 관측대상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상을 크게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의문이 더욱 많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신비이다. 일반적으로 신비란 영원히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조화로운 일이며 과학의 발전과 지혜의 발달에 따라 그 신비의 베일이 점차 벗겨진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주에서 신비의 대상이 되는 특징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는 만물의 유전변천이다. 만유는 생겨나 지나다가 소멸되므로 여기서 우리는 변화에 따른 존재의 본질을 묻게 된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실재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제의 내가 오늘의 새로운 나로 초월돼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고정된 자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우주적인 긴 시간에 걸쳐 보면, 나는 존재는 허무살이 만도 못한 존재로서 티끌보다 작은 무대에서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다가 사라져 가는 일종의 허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별적 사유작용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색)은 허구적이고 비실재적인 것으로 본원적 존재는 없다(공)는 '색즉시공'은 변화에 따른 자기 초월을 뜻한다. 그러나 실재는 공 가운데(들어내 보일 수 없는) 대상이 드러남으로 '공즉시색'이 된다. 이러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만유의 존재에 대한 사유와 의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유식학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일체의 형상들은 오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물질이나 소유물과 같은 일체의 것은 단지 마음 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은 경험과 지식 및 논리적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물이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체를 비롯한 여러 사상이나 현

상의 출현과 존재 그 자체는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과는 무관함으로 일체유심조'는 오직 대상의 인식에서 항상 마음이 작용한다는 현상학적 인식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전변천은 상의적 수주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우주 내 모든 천체와 여러 사물은 서로 간에 주고받음이 일어난다. 천체의 경우는 중력과 자기력이 있고, 인간의 경우는 정과 믿음이란 것이 있다. 따라서 우주 내 만물은 소위 연기라는 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있는 셈이다. 이 그물망은 곧 자연의 이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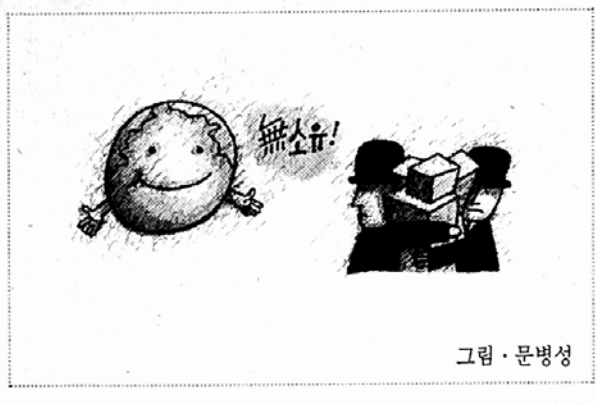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우주, 緣起를 고리로 한 거대 그물망

### 죽음 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속박되고 자유얼어 새 유형의 탄생기회 갖게돼

지닌 법계로서 우주의 질서체계에 해당한다. 이 법계는 단순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만유의 상호관계를 근본으로 한다. 이러한 그물망에 걸려있는 모든 것은 그물망이 지닌 이법을 따른다. 이것이 소위 '이사무에법계'이고, 또 그물망에 걸려있는 만유는 같은 이법을 따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사무에법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사무에와 사사

무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나타난다. 무상(無相)의 계승을 들어보자. "일결은 밤이 아직 이르다. 우리는 인연으로 자아 내는 것을 관조해야 한다. 정관(正觀)에만 의지하고 있어 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심이 나타난다."

연기의 그물망을 인간 세계에서 12연기로 살펴보면, 우리는 근본 성품인 무의식에 따라(무명) 결정하며(행), 인식한다(색),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해(명색) 5관과 의식을 통해(6처) 접촉하고(촉), 느끼며(수), 갈애하고(애), 취착하여(취) 자기 것으로 가지면서(유) 살다가(생) 늙어 죽어간다

(노사). 이러한 12연기 중에서 별의 경우는 애착, 취착, 소유 같은 것이 없으므로 9연기로써 연기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별에는 나약한 인간이 가지는 번뇌, 쾌락, 슬픔 같은 감정적 사치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이 이르는 연기관계에서 탄생이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연기작용에서 생기고, 죽음이란 무위적인 자연스러운 연기작용으로 이어가는 과정의 진입을 뜻한다. 그래서 연기의 그물망의 한쪽에 걸려 있던 생명체가 소멸하면 그 잔해는 에너지와 티끌로 남아 그물망의 여러 곳에 퍼져 존재하며 다음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죽음이 항상 없는 공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 어디든 새로운 유형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은 모든 형태의 본질이며 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공이 바로 신비의 대상이다.

### 이렇게 들었다

#### 탈선부추겨 사회문제화

##### 사이버팸 확산현상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팸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에게 탈선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팸은 사이버와 패밀리의 합성어로 같은 취미나 성향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족을 형성, 나이차와 성별 등에 따라 서로를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등으로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모임을 말한다.

사이버 팸의 확산은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이버 팸을 통해 가족에서 느끼지 못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기심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바뀌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원조제로 경찰에 입건된 박모(17)는 지난해 3월 사이버 팸 멤버 6명과 함께 가출했다. 이후 박양의 술집 아르바이트, 원조고제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박양이 밝힌 가출 이유는 학교도 부모들도 자신을 버렸다는 박탈감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이버 팸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모임으로 전락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넘어 인터넷 자체의 역기능에 대한 비난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사이버 팸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대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사이버 팸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인색이 화를 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물질의 나눔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여러분,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서,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못된다. 저승사자는 언제든지 한 순간에 귀천과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대들 한 생각 마음 위의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고, 한 생각 마음 위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보신불이며, 한 생각 마음 위의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 세 가지 몸은 바로 그대들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니,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거니와 이런 이러한 효용이 있다. 경전과 논서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 가지 몸을 지극한 도리로 여기지만, 나의 견처(見處)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이 세 가지 몸은 다만 이름일 뿐이요 또 세 가지 옷일 뿐이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불신(佛身)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불국토는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성(法性)의 몸과 법성의 땅이 빛과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겠다. 여러분,



그대들이 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임을 안다면, 모든 뜻이 그대들이 돌아가 머물 곳이다.

팔만대장경은 그 가치가 어디에 큰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 만가지들 일으키는 하나

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따라 행하는 곳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팔만대장경의 가치가 나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항상 오직 하나

글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셔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스스로의 땀을 한 대 치기 바란다.

바로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입을 열어 혀를 움직여 말하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몸을 들어 마시고, 땀을 때

리는 이 하나 뿐이다. 수많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하나이다.

그러나 이 하나는 보이는 모양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잡히는 물건도 아니고 생각되는 관념도 아니다.

## '하나' 알면 생각·말함에 막힘없어

거하여 발휘될까? 나무판자에 한자 한 자 애써 조각한 글자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한자 한자 조각하는 장인의 노력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그 판자에 잉크를 묻혀 찍은 책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그 책

그러면서도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 하나를 알면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함에 막힘없이 자재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지 못하면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함에 스스로 모양과 소리와 물건과 관념과 이름에 가로막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노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어서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과 같으니 그야말로 불쌍한 노릇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만상(萬象)을 토해내고 삼키는 이 하나에 통하는 것이 좋다. 이 하나에 통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죽지 아무런 탈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더하거나 아무 것도 찾지 않아도 불만족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탈이 나고 문제가 따라다닐 것이며, 항상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 영어로 배우는 불교영어

참선 meditation 발우 wooden eating bowls.

After communal chanting each monk returns to his place. The students go to the study hall; the meditating monks go to the meditation hall (in the meditation seasons they merely bow in the meditation hall and sit); and the working monks go to their place of duty. At about 6 a.m., breakfast takes place.

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은 각자의 장소로 돌아간다. 공부하는 스님은 강원으로 가고 명상을 하는 스님은 선방으로 간다. (참선을 하는 기간에 그들은 선방에서 단지 머리 숙여 절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일하는 스님들은 그들의 소임을 위한 자리로 간다. 6시가 되면 아침 공양이 시작된다.

Breakfast traditionally consists of rice porridge and pickles which the community eats together in silence in a formal style from a set of wooden eating bowls. After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day because the air and minds of the monks are clear.

아침 공양은 전통적으로 쌀죽과 야채 절임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발우를 이용해 정숙하게 먹는다. 아침 공양이 끝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공기뿐 아니라 스님들의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 지리산자락 우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도시요?

복종 영양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계막식(7막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우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하루 24시간 동안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서 넣고 왕겨 9kg이니를 얻은 뒤황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망 속에 묻어둔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가기까지 60~90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 덕왕사 지장대불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은 부처님전에 귀의한 후로 항상 지장보살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서 기도중에 지장도량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고 발원하여 「경북 안동시 북전면」 일출산 자락에 「덕왕사」를 창건하여 지장대불을 조성하여 모시고 일체 중생에게 다급생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육도윤회 모든 고통을 면하여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마장장애 없도록 유주무주호운영가와 상제 선망 부도영가를 왕생극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발원 하시고 이생에 지장대불 조성불사 인연공덕으로 세계생생에 무량복덕을 성취하옵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덕왕사 대자 불사인연으로 성불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 법회일시 > 매달 초하루 ~ 초 3일까지 신중기도 > 보름 인등법회 > 18일 지장재일 영가천도 법회
- 덕왕사에서 평생동안 영가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동안 모든 조상영가를 영단에 모시고 매달 지장재일마다 천도제를 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문패는 천일동안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

☞ 온라인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우체국 700435-0029797 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안동시 북전면 사신리 녹남 455-5 번지  
일출산 덕왕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 011-522-1237

###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총합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총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권 대한불교 정원암  
조 계 종 정 원 암